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0

“우리도 함께 뛰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엔씨소프트’ 확정



돈독한 우정으로 뭉친 대충중 11회 동창생들이 3·1 마라톤 세 번째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는 영원한 대충인” 우정의 질주

■ 광주 대충중 11회 동창회

“우정의 질주는 계속된다.”
 3·1 마라톤을 통해 매년 우정을 더해가는 친구들이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왕성한 동창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충중 11회 동창생들.
 1983년 학교를 졸업한 뒤 각자의 생활을 하느라 바빴던 친구들은 지난 2000년 인터넷에 동창회 사이트를 개설하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화합·친목 또다른 추억만들기

명절 고향에서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여는 이들은 지난 2009년 3·1 마라톤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마라톤 모임’도 이어가

고 있다.
 이번에도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오랜 우정을 다지며 출발선에 서게 된다.
 새 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달리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3·1 마라톤은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무대도 되고 있다.
 대충중 11회 모임을 이끌고 있는 고병선(44) 회장이 해란·주영 두 딸의 손을 잡고 달리기 할 계획이다.
 고병선 회장은 “대회 참가를 준비하면서 건강을 돌아볼 수 있고, 각자의 생활을 하느라 바쁜 친구들을 한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며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기상을 널리 알린 3·1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 딸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선 대회에서 대형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아 눈길을 끌었던 이들은 이번에도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동문회 살림꾼인 총무 오영중 씨는 소문난 스포츠맨이다. 10여차례 풀코스 완주를 한 오씨는 울트라 마라톤과 철인 3종까지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총무 오영중 소문난 스포츠맨
 5km에 도전장을 냈다. 초보 마라토너들인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다.
 오씨는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지만 하는 과정에서 외롭고 힘든 게 또 마라톤이다. 중간에 후회도 하고 힘도 들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해냈다는 뿌듯함에 매료되는 것, 이것이 마라톤의 묘미다”고 밝혔다.

최희정씨는 여성 파워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최씨는 “친구들과 달리기 하다가보면 운동회를 하는 것 같이 즐거운 기분이 든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아들과 함께 달리면서 ‘건강한 엄마’의 모습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는 친구도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고향을 찾게 되는 정상우씨는 “고향을 떠나 살다보니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든든한 친구들이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달려서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대충중학교 11회 졸업생들이 우정의 한마당을 위해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연고지 창원으로 결정

프로야구계의 숙원인 아홉 번째 구단 출범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이사회에서 제9구단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창단 기업 및 연고지 선정을 유영구 KBO 총재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창단 기업과 연고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이사회는 유영구 총재와 이상일 사무총장, 신영철 SK 사장 등 이사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KBO가 마련한 창단 기업 심의기준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창단하는 구단은 모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0% 이상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동비율 150% 이상과 부채비율 20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제9구단 창단 신청서를 낸 엔씨소프트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우선협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체인 엔씨소프트는 1997년 3월 설립된 증권 기업으로 리니지 시리즈, 길드워, 아이온 등을 간판상품으로 키워냈다. 2009년 매출 6347억원, 영업이익 2338억원을 올리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KBO는 이와 함께 신규 구단의 가입 조건으로 ‘상법상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만5000석 이상의 관중석을 보유한 전용구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엔씨소프트는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으로 5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또 현금 100억원을 KBO에 예치하고 5년간 참가자격을 유지하면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은 반환된다.
 신규 구단의 보호지역 조건은 창단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인구 수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 창원시가 제9구단 연고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엔씨소프트가 구단주 총회 승인을 거쳐 창원을 연고로 하는 제9구단으로 출범하게 되면 2013년이나 2014년 1군 가입을 목표로 코칭스태프와 선수 등 선수단을 꾸리고, 이른바 시즌부터 2군 리그에 참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롤모델 日 라쿠텐...스마트한 야구세상 열 것

엔씨소프트 구단 운영 어떻게

엔씨소프트가 제9구단 창단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프로야구에도 IT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최초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서비스하면서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소프트웨어업체로 성장한 엔씨소프트는 장기인 IT 기술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엔씨소프트는 창단 선언 때부터 “IT 분야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2년 전 가을부터 야구단 창단을 준비해온 엔씨소프트는 일본 게임제조업체 닌텐도가 대주주인 미국 시애틀 매리너스, IT 기업이 운영하는 일본 라쿠텐 골든이글스,

소프트뱅크 호크스 사례를 자세히 연구했다.
 최근에는 연고지인 창원시(110만명)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일본 히로시마시(120만명)를 방문, 야구단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등 일차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
 IT 선두주자답게 엔씨소프트는 게임 문자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각 구단도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작년보다 강화했지만 엔씨소프트의 특징은 ‘맞춤형’으로 요약된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도 미국과 일본 구장 사례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수들이 반색할 만한 색다른 보상책도 고려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에 따르면 창의성을 발휘, 종전 연봉과 달리 일반 기업에서 주는 ‘스톡옵션’ 개념을 계약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양용은 시즌 첫 톱 10

PGA 피닉스오픈... 윌슨 연장 우승

양용은(39)이 2011년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양용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스크즈데일TPC(파71·7216야드)에서 재개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 4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적어냈다.
 이상 한파로 경기가 순연되면서 예정기간을 하루 넘겨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양용은

은 브랜트 스니데커, 토미 게이니(이상 미국) 등과 함께 공동 8위를 차지했다.
 2009년 PGA 챔피언십 이후 미국 무대에서 우승 없이 보내고 있는 양용은은 지난달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공동 44위에 올랐고 두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좋은 성적을 냈다.
 우승컵은 마크 윌슨(미국)에게 돌아갔다. 윌슨은 제이슨 더프너(미국)와 똑같이 18언더파 266타를 쳐 연장전에 들어간 뒤 10번홀

(파4)에서 치러진 두 번째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승부를 갈랐다.
 윌슨은 소니오픈을 포함해 이번 시즌 2승을 거두는 상승세를 타며 PGA 투어 통산 4승을 기록했다.
 한편 비제이 싱(피지)과 마틴 레이드(스코틀랜드)가 16언더파 268타로 공동 3위에 올랐고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합계 9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37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복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